

“또 한번 뜨겁게”... 막바지 굵은 땀방울

베이징 올림픽 D-10... 최민정·차준환 등 기대
대한민국 금메달 1~2개·종합 순위 15위 목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2월 4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포츠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회 준비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 목표로 금메달 1~2개에 종합 순위 15위라고 밝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종합 순위 7위였던 것에 비하면 한참 나아진 목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전체 메달 목표와는 상관없이 이번 대회에 출전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저마

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겨울에도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의 '대표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에서는 여자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에게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2018년 평창에서도 1500m와 3000m 계주에서 우승, 2관왕에 오른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이 가장 확실하게 믿는 메달 기대주다.

지난해 10월 월드컵 경기 도중 무릎과 발목을 다쳤지만 11월 월드컵 4차 대회 1000m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세계의 벽에 도전한다.

2018년 평창에서 한국 남자 싱글 사상 최고 순위인 15위에 오른 차준환은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앞세워 베이징에서는 상위권 입상을 노린다.

스키 종목에서는 스노보드 알파인의 '배추 보이' 이상호(하이원)가 2개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한다.

2018년 평창에서 은메달을 획득, 한국 스키 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이상호는 2021~2022 시즌 월드컵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을 따내며 베이징에서도 메달권 진입 가능성을 부풀리고 있다.

이밖에 평창에서 '영미 열풍'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 '팀 김', 스피드스케이팅 김준호(강원도청), 김민석(성남시청), 이승훈(IHQ), 평창 금메달리스트 스킨레이터 윤성빈(강원도청), 평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봅슬레이 원윤종(강원도청), 한국인 최다 올림픽 출전 타이틀을 세운 크로스컨트리 이채원(평창군청) 등도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손꼽아 기다린다.

세계 정상급 기량을 선보일 '글로벌 스타'들도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손꼽아 기다린다.

남자 피겨에서는 하뉴 유즈루(일본)와 네이션 첸(미국)의 경쟁이 예상되고, 여자 피겨는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의 최근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제75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남자 개인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대성. 연합뉴스

2년차·노력과 선수 반전 우승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조대성·이은혜 개인 단식 정상

실업 2년 차 조대성(20·삼성생명)과 노력과 귀화선수 이은혜(27·대한항공)가 제75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개인 단식 정상에 올랐다.

조대성은 23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장우진(국군체육부대)을 3-0(11-5 12-10 11-7)으로 꺾었다.

고3이던 2020년 7월 삼성생명과 조기 계약하고 지난해부터 실업 무대에서 활동한 조대성은 국내 최고

권위 대회로 꼽히는 종합선수권에서 생애 첫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대한항공 에이스 이은혜가 양하은(포스코에너지)에게 3-1(11-4 11-9 9-11 16-14)로 이겨 정상에 올랐다.

중국 내공골 출신 이은혜는 2011년 한국으로 귀화해 여고부 최강 단원과 주전으로 뛰다가 2014년 대한항공에 입단한 선수다.

이은혜는 올해 대표선발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기도 귀화 선수를 2명까지만 선발한다는 규정 탓에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하지만 이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묵묵히 훈련을 이어왔고, 결국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벤투호 카타르 월드컵행 티켓 정조준

27일·내달 1일 최종예선 원정
자신감 충전·해외파 선수 가세

유럽팀을 상대로 1월에 치른 두 차례 평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벤투호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 조기확정을 노린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초점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오후 9시에 열리는 레바논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7차전 원정 경기에 쏠려 있다.

한국은 27일 레바논전을 치른 뒤 다음 달 1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시리아와 8차전 원정 경기에 나선다.

최종예선 각 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이 주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이란(승점 16·5승 1무)에 이어 A조 2위(승점 14·4승 2무)를 기록 중이다. 3위 UAE(승점 6·1승 3무 2패)와는 승점 8점차다.

이에 따라 UAE와 '최하위' 시리아(승점 2)의 7차전 결과에 따라 한국은 이르면 레바논전에서 카타

르행을 확정,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룰 수 있다.

최종예선 2연전에 대비해 이달 9일 터키로 떠나 훈련 중인 대표팀은 이번 소집 기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15일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에서 5-1 대승을 거뒀고, 21일에는 몰도바를 4-0으로 격파했다.

FIFA 랭킹 33위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아이슬란드(62위)와 몰도바(181위)는 순위가 낮은 팀들이지만, 유럽 팀들을 상대로 연달아 4골차 승리를 따낸 건 긍정적이다.

국내파 점검을 마친 벤투호는 이제 더 강력한 스쿼드로 최종예선을 준비한다.

벤투 감독은 최종예선 2연전을 앞두고 황희조(보르도)와 김민재(페네르바체), 정우영(알사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황인범(루빈 카잔), 이재성(마인츠)을 불러들였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소집이 보류돼 '완전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해외파 6명이 전력에 무게를 실는다.



스파이크 서브 여왕 이소영 23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 스팅아웃 서브 퀸 콘테스트에서 K스타 이소영이 강력한 서브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V-스타가 세트 스코어 2-1로 승리하며 끝이 났다. 연합뉴스

청주KB 3년 만에 정규리그 왕좌 복귀

여자농구 정규리그 1위 확정
23승 1패·신바람 14연승 기록

청주 KB가 14연승 신바람을 내며 23승 1패로 2021~2022시즌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다.

KB는 22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용인 삼성생명과의 홈경기에서 75-69로 이겼다.

최근 14연승을 거둔 KB는 23승 1패를 기록, 남은 6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다.

24경기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 한 것은 단일리그가 도입된 2007~2008시즌 이후 최소 경기 정규리그 1위 확정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16~2017시즌 우리은행의 25경기(24승 1패)였다. 이때는 팀당 정규리그 경기 수가 35경기였고, 이번 시즌은 30경기로 차이가 있다.

정규리그 우승 상금 5000만원을 받은 KB는 또 구단 사상 최초로 14연승을 달성, 정규리그 1위 확정 기쁨이 두 배가 됐다. 종전 KB의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은 2019년 2월의 13연승이었다.

영당이 시킨 겨울~

제주 시민만을 위한 노비타비데로 겨울나기

2022. 01. 18 ~ 02. 28

코로나 상생지원금
타나는 전 사용가능

주 소 : 제주시 연삼로 17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novita
A KOHLER COMPANY

특별 할인혜택

1년치 필터(2개)

무료 설치

에코백 증정

닥터클린 10%할인

3년 무상 AS

01

7만원 할인

BD-AFE50N

#생활 방식 #어린이 기능
#자동노즐 세척

299,000원 229,000원

강력 방식

02

7만원 할인

BD-CD51N

#방수등급 IPX5 #자동노즐세척
#원적외선 건조

309,000원 239,000원

BEST

03

4만원 할인

BD-H700HO

#매일자동살균!
#손 대기 삶은 도기까지 살균!
#방수등급 IPX7 #원적외선건조
#3WAY, 3D노즐 #3분 케어

399,000원 359,000원

닥터클린 서비스 할인 접수 방법

노비타 홈페이지(www.novita.co.kr) > 제품 등록 > 쿠폰 발급

※ 홈페이지에서만 혜택 적용 가능 (유선, 방문 신청 시 적용 불가)